

당뇨병 환자 50% ... '발기부전'

- 음경해면체내에 약물 주사해 치료

성 기능장애 치료제의 개발로 환자진료의 폭이 넓어지고 성 기능에 대한 진료실에서의 대화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진료환경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발기부전은 음경질환의 일종으로 비뇨기과 의사들이 주사치료, 진공압축기구, 수술 등 주로 생식기 지향적인 치료에 주력하였으나 성기능장애의 경구약제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차진료에서도 넓은 범위에서 의사들의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접근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다양한 성기능에 대한 지식이 알려져 있고, 특히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 질환의 환자들의 의료정보수준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충분한 성기능장애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남성 당뇨병환자의 약 50%는 발기부전이며 기능장애의 시작은 일반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지역 유병률 조사를 통해, 전체 남성인구의 1/10이 발기부전이라는 추정보고가 있으며 40세에서 70세의 남자는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 특히 연령의 증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에서는 발기부전이 훨씬 높은 유병률로 보고되는데, 당뇨병환자의 35~75%가 발기부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당뇨병환자에서의 발기부전의 유병률은 30세에서 15%, 60세에서 55% 이상의 빈도를 보여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도를 불문하고 일반인보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빨리 발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뇨병에서의 동반 합병증은 신경병변과 혈관병변으로, 발기부전 동반기전은 해면체동맥부전이나 해면체정맥폐쇄부전, 또는 자율신경병변 등이 가장 중요한 기질적 병태생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분비적 이상이 기질적 이상의 병리인지는 논란이 있다.

최근 당뇨병 성기능장애 치료에서 최근 주목받는 점은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와 같은 먹는 약의 유효성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높은 유효성을 요하는 당뇨성 발기부전에서 단계적인 경구 치료법이 임상실험결과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시작하여 인슐린 주사기에 익숙한

글_이용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음경해면체내 주사요법은 더 높은 유효성으로 기질적인 환자에서 경제적인 치료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또한 당뇨병환자에서는 음경자율신경의 영향으로 말초신경병변 환자들이 흔히 사정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가즘은 생식기, 골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생리학적 반응과 대뇌에서 기원하는 주관적 쾌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초신경병변증이 동반된 여성에서도 오히려 성적 감각이 보상성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연구결과가 보고될 정도로 남성과 여성에서 느끼는 감각적 경험은 유사하나 여성의 성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당뇨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절정감장애의 유병률이 높다 고만 알려져 왔으며, 최근 여성에서도 성적 흥분장애나 절정감장애의 여성에서 질내 자극시의 음핵혈류변화의 조사를 통해 일부에서나마 여성 성기능의 생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능장애에서 남성과의 큰 차이점은 여성의 기능부전은 극도의 성욕부전이나 절경련 등을 제외하면 성관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 검사에서 혈류나 감각의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자신의 성기능이 이상이라고 느끼는 여성이 많지 않으며, 문화적으로도 여성이 자신의 성욕이나 절정감의 장애를 드러내어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적어 임상적으로 여성 성기능장애 환자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당뇨병자만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조사보고에서도 남성의 경우 44%에서, 여성의 경우는 27%에서 기능장애를 호소하여 주관적인 남녀의 성기능장애의 차이를 가늠케 한다.

일반적으로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전체인구의 52%가 발기부전을 동반하는 반면, 당뇨병환자들에서는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더 많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남녀 성기능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성기능장애의 병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당뇨병환자에서도 원인별로 만족할 만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